

이윤이(작가)+조은비(독립 큐레이터)
2016.10.14.금 16:00

조은비 안녕하세요, 저는 조은비라고 합니다.

이윤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윤이입니다.

조은비 저는 작년에 전시 «여기라는 신호»를 갤러리팩토리에서 기획했고, 그 전시에 이윤이 작가를 초대하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개인과 개인이 서로를 지탱해주는 상호성을 공감이라는 키워드와 '부력'이라는 비유를 통해 풀어낸 전시였는데요. «여기라는 신호»에서 제시하고자 한 상호성이라는 개념과, 인미공 개인전에서 흥미롭게 봤었던 이윤이 작가의 작업 언어와 구조가 서로 맞닿는 지점이 있어서 윤이 씨를 제 기획전시에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기획자로서 고민하는 주제들, 젠더 이슈, 관계성, 여성적인 것, 다성적인 언어 등과 이윤이 작가의 관심이 서로 연결되면서 지금까지 동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윤이 씨와 '작가와의 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를 상의하면서 제가 메일로 먼저 몇 가지 질문지를 드렸고, 그에 대해 윤이 씨가 답을 주는 방식으로 사전 미팅을 진행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 윤이 씨의 작업을 아직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윤이 씨가 최근 플랫폼-엘의 기획전시에서 선보였던 신작 <메아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되, 사전에 윤이 씨와 나눴던 질문들의 맥락을 연결해 오늘 '작가와의 대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작품 <메아리>를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스크리닝]

메아리 *Hearts echo like mercury*

HD video, sound, color, 19min 12sec, 2016

조은비 플랫폼-엘이라는 공간에서 처음 이 작업을

봤는데요. 이렇게 공간을 바꾸어, 맥락이 다른 곳에서 보니 색다르네요. 이 작업은 작가의 전작들과는 다르게 마지막 크레딧이 없어서, 전시장에서는 작품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 구조가 이전 작업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윤이 영상 작업을 할 때, 시작과 끝을 물리는 것을 좋아해요. 이야기가 계속 울릴 수 있도록 여지를 두는 편인데요. 한 번의 스크리닝을 할 때는 관객과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같이 할 수 있지만, 전시장에서의 영상 감상은 관람객이 어느 순간에 들어올지 모르고, 각자 보는 순간부터 이야기를 재구성해 나가게 되니까요.



↑ 메아리 *Hearts echo like mercury*, video still, 2016

조은비 그럼 이제 제가 준비한 질문 몇 가지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언어'와 관련된 질문이에요. 가령, 텍스트, 글쓰기, 영상 언어, 사운드 언어, 목소리. 그리고 두 번째는 작가가 영상 안에 등장하는 화자와 맺는 관계와, 그리고 그 영상을 보는 관객과 맺는 '관계'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언어와 관련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이윤이 작가님은 학부 때에 문학을 전공하셨어요. 시를 쓰셨죠. 때문인지 작업에서도 텍스트에 대한 욕망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작업이 이야기 구조를 통해 영상으로 구현되는데, 이때, 영상 속에 자막이라는 형태로 등장하는 글쓰기가 선형적이고



단일한 서사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파편적이고 마치 하나의 시를 읊조리듯이, 언어를 통해 여러 알레고리가 등장하고 있어요. 종종 인용구를 삽입하기도 하셨죠.

하지만 관객에게 익숙한 영상의 방식은 텍스트와 이미지가 일대일로 대칭하거나, 설명이 들어가서 해석을 가능케 하는 방식이잖아요. 텍스트가 이미지와 대칭되면서 일종의 지시적인 기능을 하죠. 그러나 윤이 씨의 작업에선 텍스트가 설명적인 기능을 한다기보다 명확한 지시를 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긴장감이 작업에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긴장을 발생시키는 것을 작업에서 어떻게 의도하고 구현하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예전에 제가 윤이 씨에게 어떤 식으로 작품에 들어가는 텍스트-글을 쓰는지 물어봤을 때, 자신에게 언어는 영상을 편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셨어요. 사실 하나의 글이라는 것도 텍스트를 배치하고 편집하면서 완성되는 거잖아요. 단어와 문장을 배치하고, 바꾸면서요. 작가 자신에게 언어는 영상 편집처럼 이미지를 편집하고 배열하는 것과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요. 영상과 텍스트를 짝짓는 작가의 기준이나 의도가 궁금합니다.



↑ 메아리 *Hearts echo like mercury*, video still, 2016

이윤이 아까 스크리닝에 관해 이야기하며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물리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메아리〉를 예로 들어 설명해볼게요. 내레이션이 이야기의 시작에 오죠. “우리는 여행을 계획하였다 / 필요한 물건들과 규칙도 정하였다 / 한 사람 앞에 세 가지 이상은 가져오지 않으며 / 그것들이 다 닳을 때까지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써놓았던 짤막한 시였어요. 실제 지인이기도 한 인물을 데리고 여행지에 갔을 때, 이야기의 시작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우리는 여행을 계획하였다”라는 실재하는 이야기로 시작해 봤죠. 그런데 “그것들은 그럭저럭 여행 기분을 내어주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실제로 여행에 간 건지 아닌지를 흐리거든요.



↑ 메아리 *Hearts echo like mercury*, video still, 2016

이 영상의 끝부분을 보면 케이블카가 안개 사이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제가 인물에 대한 단상 내지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말해요. “쌍둥이 언니는 시집을 갔다 했고 / 남자친구 장가갔음을 알고 / 이름을 바꿨고 / 노래를 멈췄고” 이런 자막과 함께요. 또 동시에, “아는 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뒤척이며 / 곁에서 잠든 밤” 이렇듯 분절된 이야기들은 마치 인물의 곁에서 잠든 채 톱 꿈같이 함께한 여행지에서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화에서 서사를 푸는 방식과 달리, 시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 상징일 수도 있고, 심상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미지를 보조하는 텍스트를 만들고 싶어요. 먼저 매혹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것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써 봤던 시나 참고 문장이

작가가 글대어 노크

들어갈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메아리> 속 인물이 화살 시위를 당겨 관객을 마주하는 장면에서 앨런 식수(Helene Cixous)의 [메두사의 웃음/출구]에서의 인용구를 일부러 사용했어요. “여자는 자기 자신에게도 불가사의하다. 그 점에 대해 오랫동안 불안해 왔다. ‘자신을 이해할 수 없음’을, 그리고 자신을 알지 못함에 대해 죄의식을 가져왔다.”라는 글이었죠. 인물의 현존하는 모습 자체, 입고 있는 모양새, 머리 모양, 나이 든 정도 등 그 인물의 신체를 마주할 때 우러나는 불안함 등이 그 텍스트를 통해서 인물을 설명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길 바랐어요.

편집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시를 쓸 때 선택된 어휘를 사용하잖아요. 배제하는 어휘도 있고, 선택된 어휘의 배열을 통해 어조를 달리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 영상에서 텍스트를 쓸 때도 시어를 고르듯이 글을 붙이려고 해요. 인용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시 한 편에도 서사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식의 서사는 아니지만, 파편적인 이미지들로 하나의 이야기를 구축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선택들로 인해 만들어진 시적 긴장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조은비 두 번째로는 사운드에 관한 거예요.

<메아리>의 서사는 파편적이지만, 정서적인 상태나 흐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운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윤이 씨가 밴드 활동을 했고, 그래서 음악도 잘 다루시잖아요.

그리고 목소리. 이전 작업에서는 단일 화자가 하나의 목소리로 서사를 만들어가지 않고, 다른 목소리가 계속 개입을 하면서 화자를 지속해서 교체해 다양한 목소리가 겹쳐지는 지점들이 생겨나는데요. 단일한 화자가 하나의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것을 일부러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단일한 서사를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저는 이것을

목소리를 변주하고 다양한 타자들을 이야기에 개입시키면서 이야기의 바깥을 열어 두어 열린 구조를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사용하는 방식, 사운드를 사용하는 방식 등에서 목소리를 통해 서사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작가의 고민과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 메아리 *Hearts echo like mercury*, video still, 2016

이윤이 이번 <메아리> 영상은 밴드 활동이라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처음 드러내는 작업이에요. 제 오랜 친구이기도 한 영상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 키친(Yellow Kitchen)이라는 밴드에서 보컬과 기타를 했던 친구인데요, 저도 당시에 비슷한 성향의 음악을 하는 밴드에 있었어요. 옐로우 키친은 당시 제가 팬이었어요. 초기 그들의 음악은 기타로 만든 핑음, 기타와 앰프를 써 피드백과 하울링을 만드는 노이즈 음악이에요. 후에 포스트 락, 슈게이징, 드림 팝으로 불리는, 90년대 소수 취향의 밴드였죠. 친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음악 활동을 멈추고 현재는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제 나이 또래의 여성이에요.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의 성향이 다들 비슷했는데요. 자아도취적인 슈게이징 음악 장르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전 작업인 <나이프, 스푼, 포크>나 <마야(날 댕)> 같은 경우에는 주로 레지던시에서 만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을 같이 보냈고, 작업하는 과정 자체가 그들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각자 국적으로 다르고 고유한 언어가 다르고, 서로에 대해 아는 것들이 많지 않았죠.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작업을 통해 대신하기로 했었어요. 예를 들어, 불어를 하는 친구가 스페인어를 하기도 하고, 영어를 하는 친구가 한국시를 낭송하기도 하고요. 자기의 기억이 아니지만, 상대방의 기억을 대신해 말하는 방식으로 계속 서로를 교환하며 발견되는 공통된 것들, 변화, 차이를 기록하려고 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음악을 하던 시간을 돌아봤을 때의 애뜻함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같이 활동했던 친구 중에 지금 음악을 계속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소수고, 다들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던 내성적인 면들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걸 소리로 상상해보면 어떨까 싶어 ‘메아리’라는 소리의 속성을 떠올렸어요. 메아리라는 것은 질러낸 소리가 어딘가 표면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소리잖아요. 닳음을 반복하는... 그런 애뜻한 정서들이 어딘가에 떠돌고 있다면, 그리고 무언가에 부딪혀 다시 돌아온다면 어떨까. 또 음악 만들기를 멈춘 친구에게 다시 영상에 쓰일 음악들을 만들게 하고, 무언가 나도 하고 싶은 그 사람이 원할 것 같은 말을 하게끔 하자는 의도에서 이 작업의 사운드와 영상을 구상했어요.

예를 들어, 댐에서 쏟아지는 물이나 터널에서 울리는 사이렌, 마지막 장면에선 친구가 기타를 들고 앰프 곁에 누워있죠. 증폭되는 소리를 감상하는 환경 속에 친구를 두었고, 그 소리의 물성 자체를 같이 경험했어요. 물론 제가 상상한 그 사람의 욕망이지만, 작업을 통해서 감정을 분출하게끔 욕망을 부릴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인물의 증폭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래 보면 어떨까를 카메라 밖에서 상상해본 것 같아요.

조은비 보이스오버나 내레이션을 자주 사용하는 의미에 관해서 설명해주신다면요.

이윤이 보이스오버와 내레이션을 자주 쓰는데요.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등장하는 것보다는 감정을 이입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서 쓰고 있어요. 그냥 소리가 아니라 인물의 목소리이고 내적 독백의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에 대해 “들려주는” 혹은 “말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에요.



↑ 메아리 *Hearts echo like mercury*, video still, 2016

조은비 조금 전에 영상에서 등장하는 인물과의 관계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작품에 주로 친구나 동료, 작가 자신 등 작가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친밀한 인물들이 영상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잖아요. 자신의 미술 작업을 위해서 그들에게 특정한 상황을 제안하고 그 상황 안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설정하는 것이죠. 제가 흥미로운 것은 카메라 바깥에서 맺는 관계와 미술 작업 안에서 이들과 새롭게 관계를 맺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작가가 취하는 태도나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사전 인터뷰를 했을 것이고, 각자의 기억을 꼬집어내기 위해서 소품을 많이 사용하신 것 같고요. 가면이 나오고, 모자가 등장하기도 하고, <메아리>에서는 기타가 나오고요. 천 망토나 다양한

이윤이(작가) 조은비(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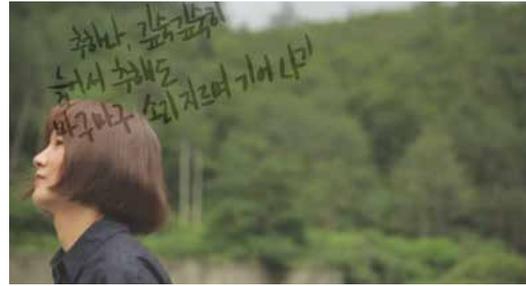
작가가 글대어이 노크

의상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소품들이 인물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과 작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새롭게 관계 맺는 과정에 생겨난 어떤 일치 혹은 불일치의 경험 같은, 카메라 바깥의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이윤이 제가 아까 아름다운 것을 선호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친구는 제가 매혹을 느끼는 대상이죠.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쌍둥이라는 점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가 남자 쌍둥이였고, 중학교 때도 제일 친한 친구가 여자 쌍둥이였어요. 지금 기억해보면 그들이 하나로 기억될 때가 있어요. 저도 쌍둥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가지고도 있었어요. 제가 이 친구에 대해 가지고 있는 환상이죠. 저는 쌍둥이로서 그 친구의 경험을 듣고 싶어서 자주 질문했는데 그 친구는 그에 관련한 특별한 기억이나 감정이 별로 없다고 했어요. 친구가 실제 쌍둥이 언니의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크게 닮지 않아 평범한 자매 정도로 보였어요. 메아리가 같은 소리가 계속해서 되돌아오는 것처럼 그 인물을 향한 저의 질문, 그녀에 대한 저의 환상이 계속 부딪혀 오는 것 같았어요.

또 우리가 공유하는 문화적 코드, 슈게이징(Shoegazing)의 수동적 태도와 공격적 정서를 마치 관객들이 스크린을 무대에서 자기 신발을 바라보며 연주하는 음악가를 바라보듯이, 자기 침잠이나 자아도취 같은 상태를 마치 수면을 바라보듯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정서적 거리감을 염두에 뒀어요. 슈게이징 장르에서 많이 쓰는 시각적인 사이키델릭 효과나 색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소품들을 준비해서 여행을 갔어요. 모아레 무늬 같은 천의 경우는 저에게 물결같이 느껴졌고, 빛나가는 화살과 혼자 울리는 기타 같은 경우는 메아리 소리를 물리적으로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그 인물

스스로 발화하는 장면에서는 그 소품들을 직접 쓰지 않았지만, 에코와 나르키소스 신화를 컨텍스트로 삼거나 사냥하는 숲과 인공 폭포 같은 댐, 합주실 장면을 만들 때는 픽션에서의 장치나 도구로 소품들을 사용했어요. 수줍음이 많은 친구가 카메라 앞에서 소품들을 사용할 때 좀 더 편안함을 느끼길 바라기도 했어요.



↑ 메아리 *Hearts echo like mercury*, video still, 2016

조은비 《메아리》에 나오는 이미지-짤방은 주인공이 다 수집한 건가요? 본인(친구)이 직접 그리는 건 아니죠?

이윤이 본인이 직접 그린 것들 이에요. 작업에서 쓰인 것들은 제가 선택한 것들이고요. 쌍둥이인 그 친구가 그려놓은 낙서들이 거의 얼굴들이 미러링 된 이미지들이라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작품 중간에 그 친구의 손글씨가 나오는데요. 한 인물을 전달할 때 그 사람의 방이나, 그 방에 책장, 벽에 포스터, 손글씨라든지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매혹을 느끼는 대상인 한 사람이 어떤 것들로 이루어진 것인지 시각적 정보로서 가장 잘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혼자 보는 것들을 제가 같이 보고 싶은 욕망도 있는 것 같아요.

조은비 오늘 윤이 씨와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전에는 잘 몰랐던 이면의 이야기들을

알게 됐어요. 저도 90년대 흥대 앞 인디씬에 애정을 가진 사람으로 옐로우 키친의 멤버였던 이 인물이 어렵듯하게 느껴져요.

어쨌거나 작가와 작가가 화면 안에 담기를 욕망하는 인물, 즉 작가와 등장인물과의 관계에 관객인 제게도 정서적인 연결고리가 이렇게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둘의 커뮤니티 바깥에 위치한 관객들과는 어떻게 그 정서적인 연결고리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보는 사람, 즉 관객의 입장에서 이 사적인 관계가 얼마나 흥미로울 수 있을지, 결국 작가 자신이 의도한 지점을 관객이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전시기획을 할 때, 제 개인적인 질문이나 관심에서 출발한 주제를 관객에게 링크가 걸릴 수 있도록 보편적인 언어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작업을 둘러싸고 ‘사적이다’, ‘자기 반영적이다’, ‘자기 고백적이다’라는 크리틱을 종종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저 역시 윤이 씨가 부딪힌 고민에 공감하거든요. 작가로서 관객들이 자신의 작업에서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지점이나, 어떤 부분을 알아차렸으면 하는지 묻고 싶어요.

이윤이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어서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시를 공부할 때도 그랬고, 밴드 음악 할 때도, 제가 좋아했던 것에는 실험 예술에서의 전위적인 성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시각 예술에서, 보편성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고민해요. 저와 저에게서 확장된 주변, 또 그 주변에서 확장된 어떤 대상들이 공유하고 감각하는 것을 만들고 싶어요.

보편성이라는 부분은 제가 각색하고 글을 쓰고, 편집할 때 선택하고 배제하는 요소들의 사회문화적 차원, 지식이나 정보, 신화 등을 사적인 영역으로 끌어오으로써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들을 함의한다고 봐요. 직접적인 발언이나 사회적

참여를 하는 작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작가가 한 세계관을 형성할 때, 개인을 타진해서 말할 수 있는 것들, 불안함이나 모호함, 추상성 등을 하나의 구조 안에서 응축하고 자기를 반영한 주관적 세계를 만드는 것도 사회의 한 개인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은비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보편성’은 내용의 보편성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전달하고 드러내는 방식에서 최소한의 공통감이에요. 작품이 사회적인, 정치적인 메시지를 가져야 한다는 차원은 분명히 아니에요.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페미니즘의 테제처럼, 사적인 것은 분명 중요해요. 하지만 그 낯밀한 언어를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서 관객과의 연결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보편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저 자신에게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의 보편성, 공통감이 고민되더라고요.

이윤이 저는 같이 감각하는 경험 정도로 생각해요. 모든 예술이 문학적인 것을 근간으로 하고 구상하는 과정 자체가 문학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설치를 할 때도 이질적으로 부딪치거나, 아름답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각색을 거치게 될 텐데요. 제 작업의 숨겨진 의도와 미끄러지는 언어, 메타포 같은 것들을 관객들도 같이 감각하고 경험했으면 합니다.

조은비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에 앉아계신 관객분들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 1 마지막에 두 분이 하셨던 대화는 작가에게는 언제나 숙제인 것 같아요. 사변적인, 일기장 같은 이야기들이요. 기획자도, 작가도 고민인 부분인데요.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이윤이(작가) & 조은비(미술)



싶었어요. 예를 들면 보편성이라면 누구를 위한 보편성인지 질문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의 대중을 설득할 것이며, 예술이 꼭 모두에게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면 얼마나 공공적이게끔 해야 하는지 질문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능경 선생님과 토크에서 나왔던 ‘개인과 예술, 혹은 일상과 예술은 절대 같을 수 없다’는 전제를 믿고 있기도 하고요. 또 전작들에서 작가 본인이 직접 피사체가 되어 화면에 나오는 작업이 있었는데요. 제가 봤던 작업 중 특히 <메아리>는 굉장히 보편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저 대상을 모르더라도, 저 음악이나 시를 이해하지 않아도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 작업과 달리 <메아리>의 경우는 오래 알던 지인과 한국에서 만들어졌는데요. 물론 제가 한국어로 보기 때문에 그만큼 공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전과 다르게 한국어로 작업하는 것이 과거와 차이가 있었나요? 해외 레지던시 작가들과 작업할 때, 서로 모국어가 아닌 말로 소통을 했을 테고, 이번 작업에서는 거의 전 스태프가 보편적으로 함께 아는 언어(한국어)를 썼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있어서 전작들과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메아리 *Hearts echo like mercury*, video still, 2016

이윤이 <메아리>는 제 작업 중 가장 긴 영상이었어요. 보통 7-8분 정도의 영상들을 만들었고, 아주 짧은 쇼트들로 장면전환을 빨리하여 편집하는 편이었는데요. 이번 작업은 인물 자체, 인물의 성격이 가진 호흡을 따르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 아이폰으로

촬영한 해수욕장의 갯벌에서 수다 떠는 장면 같은 경우는 아무런 편집 없이 ‘자각몽’에 대한 이야기가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전작에서는 각각의 목소리가 각기 다른 음색이었다면, 이 친구는 자기 자신의 언어와 목소리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굳이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사랑의 메아리>라는 러시아 민요를 허밍 할 때와 수다 떨 때, 제 목소리가 짙막하게 나오기도 하죠. 레지던시에서 만난 친구들의 목소리나 이야기는 저에게는 새로운 재료였지만, <메아리>에서는 제가 이 친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착각이나 환영이 재료이고, 실제 작업하면서 나는 시간과 공간을 거의 순서대로 담았어요.

질문자 1 대사 나오는 마지막 부분의 케이블카 장면에서 나오는 시가, 작가가 쓴 시일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벧속에 있을 땐 처음이고, 나와서는 답음을 산다”는 문구가 인상적이었어요. 항상 대상을 불러와서 작업하는데, 그 말이 동료든, 연인이든, 친구든, 처음 보는 사람에게든 그 문구대로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윤이 그 답음에서 애뜻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계속 한 인물이 나오지만, 그 인물을 보조하는, 총계에서 숨어서 바라보는, 이야기를 듣는, 목소리를 따라 하는 누군가가 있음을 연출한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듯 스스로를 바라보는 상황을 만들고 싶었어요.

조은비 작업하실 때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영상 안에 그 과정들이 들어가는데요. 그때마다 작가 자신에게도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메아리> 작업을 진행하면서는 어떠셨나요?

이윤이 이번에는 오랜 친구인데 작업 때문에 여행도 같이 가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서로 작업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이나 이해, 신뢰,

이 작업이 서로에게 의미가 있기 위해 배려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중요했어요. 제 과거를 떠올렸을
때, 수면에 떠오른 사람과 작업을 한 것이잖아요.
한국말로 섬세하게 대화할 수 있어 좋았고요. 스무 살
초반의 관심사였던 음악과 뮤직비디오, 써 놓은 시나
새로운 글이 합쳐지면서 이십 대를 한 번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들었던 음악들을 다시
들어도 좋더라고요. (웃음)

조은비 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이 감사합니다.

이윤이는 인사미술공간에서
2014년 첫 번째 개인전 <두 번
반 매어진 / A Round Turn and
Two Half-Hitches>을 가졌다.
최근에는,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에서 <푸쉬, 풀, 드래그>,
2016년 국제 갤러리에서
<유명한 무명>, 교역소에서
<헤드론 저장소>, 2015년 갤러리
팩토리에서 <여기라는 신호> 등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www.yiyunyi.com

조은비는 KT&G 상상마당 갤러리,
아트 스페이스 풀에서 큐레이터로
일했다. <아직 모르는 집>(2013,
아트 스페이스 풀), <여기라는
신호>(2015, 갤러리 팩토리),
<내/일을 위한 시간>(2016,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복행술>(2016, 케이크 갤러리)
등을 기획했고, 공동 번역서
[스스로 조직하기](2016,
미디어버스)를 출간했다. 2017년
6월 두산갤러리 서울에서 기획전
<모빌(가제)>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윤이(작가) + 조은비(큐레이터)